

A20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51판

디자인

내달 17일부터 '서울디자인한마당'...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작품 7選

돌이 나무와 만나 가구가 되고 여체 닮은 의자에 관능美가...

디자인에도 때론 가이드가 필요하다.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잠원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 우리나라 기업, 해외 기업, 국내외 대학과 디자인연구소에서 내놓은 제품이 한꺼번에 모인다.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 봐야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들지도 모른다. 서울디자인한마당을 지휘하는 전문가들이 디자인 초보자를 위해 골라 뽑은 '가장 먼저 봐야 하는 디자인 작품' 7가지를 소개한다.

◆돌과 나무가 만난 가구... 최병훈

'아트 파비치(Art Fabric)'의 연구자로 불리는 최병훈(58) 중앙대 목조형가학과 교수. 돌과 나무로 빚어낸 그의 작품은 대개 간결한 자연미의 정점(頂點)에서 탄생한다. 독일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Vitra Design Museum)'에 소장돼

제로 바를 수 있는 제품. 어디에 뒀도 어울리고 실용적이다.

◆브라질의 천체 형태 캄파나(Campana) 형제 의자

브라질 디자이너 캄파나(Campana) 형제가 만드는 의자나 탁자는 그야말로 전위적이다. 밧줄과 자투리 천, 버려진 가죽으로 만들거나 철사를 얹기 쉽기 얹어놓고 의자라고 주장한다. 거칠고 과격적인 디자인. 디자인한마당에선 이들이 이탈리아 가구 회사 '에드라(Edra)'와 손잡고 만든 의자 '아네모네(Aнемone)'를 볼 수 있다. 여러 개의 플라스틱 호스를 연결해 밧줄과 철사를 보는 느낌. 낫의 내색을 즐기는 작품이다.

◆괴상명숙한 꽃병... 하이에 아론

스페인 출신 디자이너 하이에 아론(Hayon). 도자기를 의자 또는 욕실 가구에 도입해 환상적 이면서도 기발한 작품을 내놓는 이로 유명하다. 이 중에 널리 알려진 작품이 바로 꽃을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빚어내는 '쇼타임 꽃병(Showtime Vase)'. 외계인을 닮은 도자기 자기하고 귀여운 이 도자기 꽃병은 디자인이 유머와 만났을 때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디에나 어울리는 커피메이커... 가즈시게 미야케

일본 디자이너 가즈시게 미야케(Kazushige Miyake)가 바람문호용품 회사 무지(Muji)와 손잡고 만든 커피메이커는 단순하지만 감각적이다. 커피 분쇄기, 필터, 물 넣는 통을 따로따로 뚜렷하게 만들었다. 다 합쳤을 때 완성되는 기쁜 커피메이커와 달리, 각각을 따로 놓아도 묘자취 있는 형태와 기능을 자랑한다.

◆즐겁고 풍요로운 책장... 멜피코

한리케와 기능적인 아름다움 추구하는 디자인은 이들 예전의 특징이다. 1981년 등장한 이탈리아 멜피코(Memphis) 디자인 그룹은 조각 같은 풍부한 아름다움과 색(色)으로 보는 이를 유혹하고 회독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실용을 넘어 즐거움을 추구하는 책장 '칼튼(Carlton)'이 대표적이다.

◆여성의 몸 같은 의자... 가에타노 페세

전설적인 이탈리아 디자이너 가에타노 페세(Pesce)가 2000년에 만든 '업 시리즈(Up Series)' 의자 중 하나. 통글통글하면서도 관능적인 여자는 여체(女體)를 상징한다. 앞에 놓인 작은 발받이도 하지만 이 여체를 묶고 있는 수갑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예술적 은유를 실용적 기능에 녹인 작품이다. [송혜진 기자 ensavelchousun.com](http://www.ensavelchousun.com)

서울디자인한마당 개최
최병훈의 의자 '에드라
이미지 DB-282'

보는 즐거움을 주는 형형색색 책장
플라스틱 호스로 만든 전위적 의자
낮아·빛 세기 담대로 바꾸는 조명
외계인 닮은 듯 아기자기한 꽃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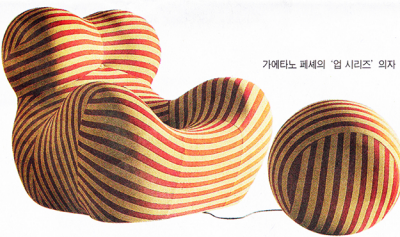
있을 정도로 외국에도 인기가 높다. 의자 '에프터이미지(Afterimage) 08-282'는 까만 화장식 위에 탄소수용 좌판(坐板)을 가발처럼 엮었다. 형 있게 내러온 분장지처럼 대담한 의자 색상과 함께 받는다. '에프터이미지 09-337'은 단숨에 사선으로 잘라낸 듯한 나무통과 둥근 틀을 붙여 만든 사이드 테이블. 곡선이 때론 직선보다 강하다고 흥분한다.

◆따뜻한 실금 라이프... LDK스튜디오

국내 중소기업 디자인 회사 'LDK 스투디오'는 홀로 사는 싱글족을 위해 포근한 생활용품을 냈다. 원형에 사는 사람일수록 창문이 없거나 아주 작은 창문만 있는 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위해 내놓은 게 '문라이트 블라인드(Moonlight Blind)'다. 기존 블라인드와는 반대로 새어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들이 만든 블라인드는 달빛처럼 은은한 빛을 끌어들이는 제품이다. 벽에 걸어놓으면 빛을 머금은 작은 창문처럼 보인다. 변신조명 '키 라이트(Key Light)'는 낮아·조명 세기들 자유자



- 1 가즈시게 미야케의 커피메이커
- 2 브라질 캄파나 형제의 '아네모네' 의자
- 3 멜피코 그룹의 '칼튼' 책장
- 4 LDK스튜디오의 '키 라이프' 조명
- 5 하이에 아론의 '쇼타임' 꽃병
- 6 최병훈의 의자 '에드라'
- 7 가에타노 페세의 '업 시리즈' 의자



가에타노 페세의 '업 시리즈' 의자